

## 7 IEA, 2025 글로벌 전기차 전망 보고서 발간

⇒ 국제에너지기구(IEA)는 전기차 이니셔티브 참여국의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 전기차의 보급 현황과 주요 정책·시장 동향을 분석한 연례 보고서\*를 발표(25.5.)

\* Global EV Outlook 2025: Expanding sales in diverse markets

-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기차 보급 동향, 배터리 및 충전 인프라에 대한 수요를 평가했으며, 주요 시장, 차량 형태에 따른 분석과 2030년 전망을 포함
  - 중국과 유럽이 전기차 판매 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, 신흥국 시장이 새로운 수요 기반으로 부상
  - 각국의 무역정책에 따라 전기차 및 배터리 부품의 가격 변동 가능성이 제기
  - 경기 둔화와 유가 하락 등 거시경제 요인으로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력과 정부 보조금 여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, 그에 따른 전기차의 가격 매력도 저하 우려
  -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책 환경에서는 2030년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40%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

⇒ 글로벌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주요 지역의 판매 시장과 생산·공급 체계 전반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고 주요 지역 간 격차 및 대응 전략을 평가

- (판매시장) 2024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1,700만 대를 돌파하여 전체 자동차 점유율 중 20% 이상을 달성했으며, 중국 및 글로벌 사우스 지역의 성장이 주목
  - (중국) 2024년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절반을 전기차가 차지하며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선두를 유지했으며, 중국 내 전체 자동차 중 전기차 비중 10% 달성
  - (유럽) 보조금 제도 및 기타 지원 정책 약화에 따라 '24년 판매가 정체되었으나 EU의 글로벌 전기차 판매 점유율은 약 20% 유지
  - (미국)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10% 증가해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10% 달성
  - (동남아 & 남미) 새로운 전기차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2024년 판매량이 60% 증가하며 총 60만 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
  - (아프리카) 이집트, 모로코 등 일부 국가에서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으나, 여전히 아프리카 내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 전기차 비중은 1% 미만
- (제조·무역) 주요 지역의 전기차 생산 확대에 따라 지역 간 격차가 완화되는 한편, 중국은 점유율 유지를 위해 공급망 강화와 수출 전략에 집중

- 2024년 전 세계 전기차 생산량은 중국이 70%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, 유럽(14%), 북미(7%), 아시아태평양 기타 지역(6%)이 점유율 확대를 시도하며 중국을 따라잡기 위한 생산 역량 강화 추진
- 중국은 2024년 1,240만 대 생산을 바탕으로 수출 목적지를 다변화하며 성장세를 이어감과 동시에 관세 조치에 대응해 해외 제조시설 설립 등 전략적 대응 모색

⇒ **차량 유형과 용도별 특성에 따라 전기차 모델이 다변화되며, 주행 거리, 경제성, 규제 대응 등 수요 특성에 기반한 보급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**

- **(차량 유형 부문)** 대형차와 SUV 중심으로 전기차 모델이 다변화되고 있으며, 주행 거리는 상향 평준화
  - 2024년 전기차 모델 수는 전년 대비 15% 증가했으며,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전기차 모델 수와의 격차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
  - 전체 전기차 모델 중 70%가 대형, SUV, 픽업트럭으로 대형차 비중은 점차 확대
  - 중국은 모든 차량 유형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 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며, 소형차는 모델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소형차 판매량 중 90%가 전기차
  - 평균 주행 거리는 340km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며, 이는 제조사가 주행 거리 성능과 제조 비용과의 균형 유지 지점을 찾았음을 의미
- **(상업 부문)** 운송 수단 전반에서 전기화가 확산하는 가운데, 경제성, 환경 규제, 운송 조건 등 수요별 특성에 따른 보급 양상이 다양하게 전개
  - (전기 이륜차) 글로벌 판매 비중은 15%로 유지되며, 중국의 수요 둔화를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성장세가 상쇄하는 양상
  - (경상용 전기차)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40% 증가했으며, 중국·미국과 달리 유럽은 감소 중이나, 경주차 대상 환경 규제에 따라 전기차 도입 확대 전망
  - (전기 버스) 우수한 경제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이 지속되며, 임대 금융 지원, 세제 인센티브 등 공공 부문 주도의 전기 버스 도입 확대
  - (전기 트럭) 운송 업계의 탈탄소화 기조에 따라 판매가 급증하고 있으며, 저속·단거리·예측 가능 경로 등 운송 조건에 적합한 영역에서 전기화 전략이 주목

⇒ **전기차 보급 확대에 대응하여 경제성 개선, 충전 인프라 확대, 배터리 기술·공급망 변화 등 주요 인프라 전반에서 조정과 경쟁 구도가 본격화**

- **(경제성)** 배터리 팩 가격 하락과 기술 경쟁 심화로 **전기차 경제성 향상**에 기여
  - 전기차는 연료비 및 유지비 절감을 통해 내연기관 대비 TCO\*가 낮으나,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구매 가격 인하 필요성 부각

\* Total Cost of Ownership: 차량 구매부터 유지·운영·처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 비용



- 배터리 팩 가격 인하로 전반적인 차량 가격은 하락 추세이나, 부품 제조 비용·트림 수준·제조사 가격 전략 등 복합 요인도 가격 형성에 주요 변수로 작용
- 고급형 및 대형 전기차 수요가 중심인 유럽·미국은 가격 인하 속도 둔화로 성장이 정체된 반면, 저가형 전기차를 적극 공급하는 중국은 내수 시장 및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시장 확대 중
- **(충전 설비)** 경상용 공용 전기차 충전기는 500만 개로 구축, 대형 전기차 전용 메가와트 충전기 확대 등 **충전 인프라 부문 투자 확대가 지속되는 추세로**, 공공 충전소에 대한 접근성은 전기차 보급에 주요한 영향 요인
  - 중국은 공용 충전기당 전기차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10대당 1개를 구축한 반면, 유럽은 가정용 충전기 보급으로 대체되어 작년 대비 약 10% 감소
  - 인구 밀도에 따라 도심 지역은 완속 충전기, 고속도로는 고속 충전기 위주로 보급되고 있으며 모든 국가에서 고속 충전기를 활용한 전력량이 더 높음
- **(배터리)** 2030년까지 배터리 수요가 3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, 신물질 기반 기술혁신 및 재활용 효율화 여부에 따라 공급 안정성 변동 가능
  - 리튬 등 핵심 광물 가격 하락 및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배터리 가격 하락이 지속됐으며, 중국은 30%로 가장 큰 하락을 기록하며 가격경쟁력 우위 지속
    - ※ 중국의 주력인 LFP\* 배터리는 미국·유럽의 NMC\*\* 배터리 대비 전력 단가 기준 약 30% 저렴
    - \* LFP: 리튬 인산철, \*\* NMC: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산화물
  - 주요국은 연구개발 투자 및 세제 정책 등을 통해 배터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트륨 이온·전고체·재활용 기술 등에서 기술 성과 가시화
  -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배터리 교체·주행 중 충전 등 혁신적 충전 솔루션 도입 시도가 확대되고 있으나, 인프라 구축 비용 및 거버넌스 문제로 대중화에는 제약

출처 : IEA (2025.5.14.)

<https://www.iea.org/reports/global-ev-outlook-2025>